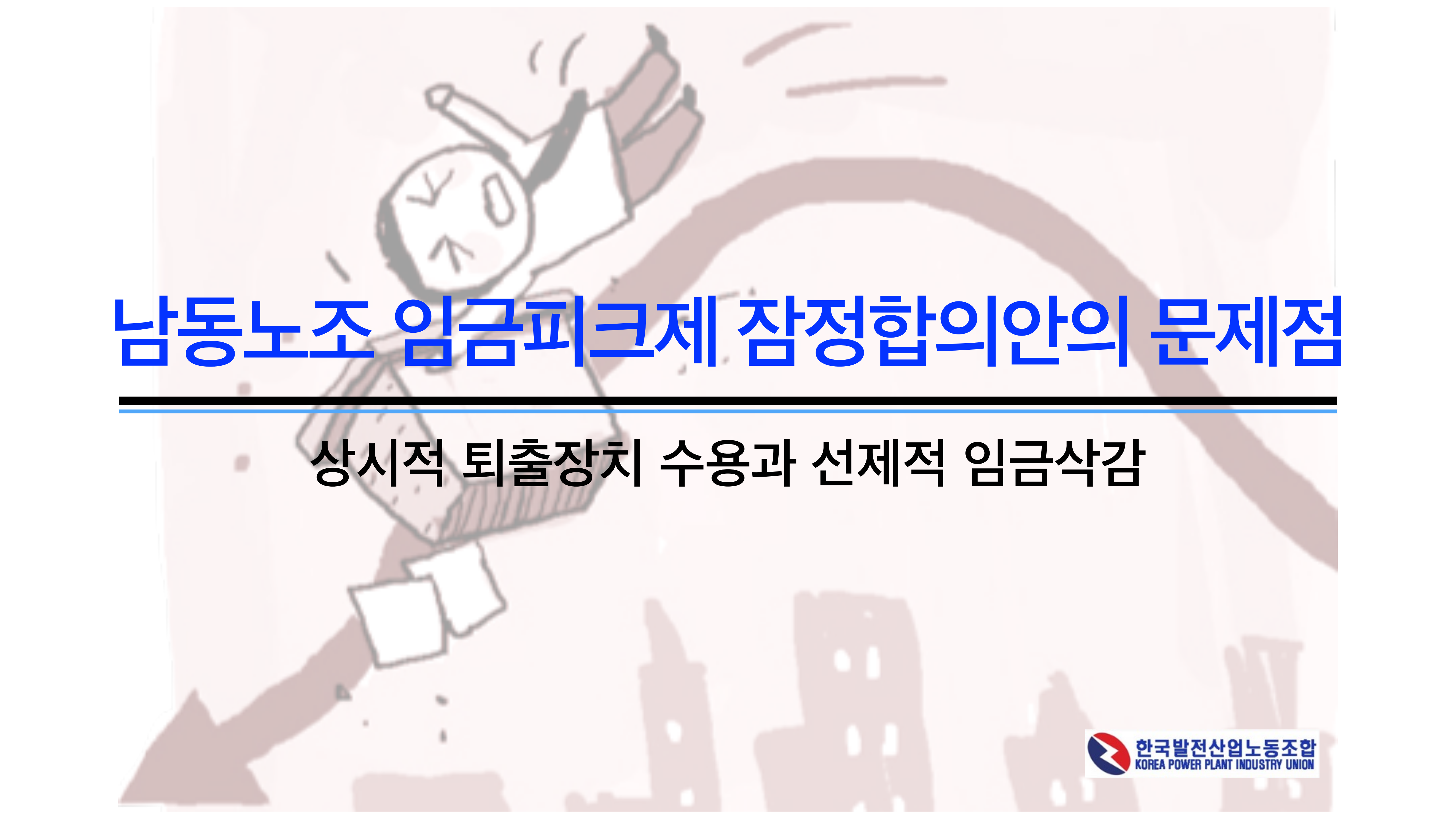




남동노조 임금피크제 잠정합의안의 문제점

상시적 퇴출장치 수용과 선제적 임금삭감

임금피크제의 본질은 상시적 퇴출장치

BusinessPost

비즈니스

정치

사회문화

인사이드

오피니언

국제

2015파워100

전체보기

홈 > 비즈니스

윤종규, KB국민은행 명예퇴직 매년 실시하기로 결정

임금피크제 직원들 대상으로 정례화... '항아리형' 인적구조 개선 나서

이규연 기자 | nuevacarta@businesspost.co.kr



승인 2015.05.21 19:24:18



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KB국민은행장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국민은행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결정했다.

-
- ✓ 임금피크제가 일반화된 금융권은 ‘피크연령 = 퇴직연령’이라는 등식이 일반적이다.
 - ✓ 임금피크제가 현실에서 퇴출장치로 이용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.
 - 회사는 임금피크 대상자들에게 “일 할만큼 했으니...”라고 하면서 퇴직압력을 행사
 - 퇴사를 거부하는 사람은 별도 보직으로 발령하여 인격적 모멸감 부여
 - ✓ 남동노조도 잠정합의안에서 임금피크 대상자들의 보직변경을 수용했다.
 - 관련 내용은 “회사는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통해 보직을 변경한다”는 것
 - 그러나 이러한 “협의규정”은 합의시행을 강제할 수 없는 조항
 - 몇 차례 공문 왕례 등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면 회사 마음대로 보직 변경 가능
 - ✓ 이러한 퇴출장치가 한 번 도입되면 현장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더 큰 희생이 더 쉽게 뒤따르게 된다.

-
- ✓ 또한 퇴출장치인 임금피크제를 수용하면 회사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금피크 연령을 정부의 최종 목표인 53세로 앞당기려고 할 것이다. 이렇게 되면 사실상의 퇴출 연령이 53세가 되는 것이다.

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임금피크제 권고내용

53



제도적 정년 60세, 체감 정년은 53세

- ✓ 현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총파업까지 결의하면서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저지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임금삭감에 불만이 있어서가 아니라 상시적 퇴출장치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회사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자 하기 때문이다.
- ✓ 그런데 남동노조는 이러한 임금피크제의 본질은 뒤로 숨기고 다른 회사보다 임금 몇 푼을 더 챙겼다는 것을 대단한 실적인양 선전하면서 머지않아 조합원들을 겨냥할 퇴출장치(임금피크제)의 가결을 요구하고 있다.

서울신문

창간 **111** 주년

만화

뉴스 | 오피니언 | 기획·연재 | **자정고** | 컬처·스포츠 | 포토·영상

정치 | 경제 | 사회 | 국제

창간 **111** 주년

서울신문 111년, 어제를 품고 내일을 열겠습니다

경제

은행권 임금피크제 10년... “정년 못 채우고 퇴직금만 줄었다”

국민·우리 등 6곳 시행... 대상은 극소수



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
KOREA POWER PLANT INDUSTRY UNION

대내외적 환경변화와 임금피크제의 파급효과

에너지타임즈

편집 : 2015.6.12 금 11:21

정치/정책 경제 기후변화/환경 사회/문화 동행 오피니언 기획/

에너지산업 종합 수요관리 전력 원자력 가스 석유/자원 신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LED

개인회생 무료상담
기각시 100%환불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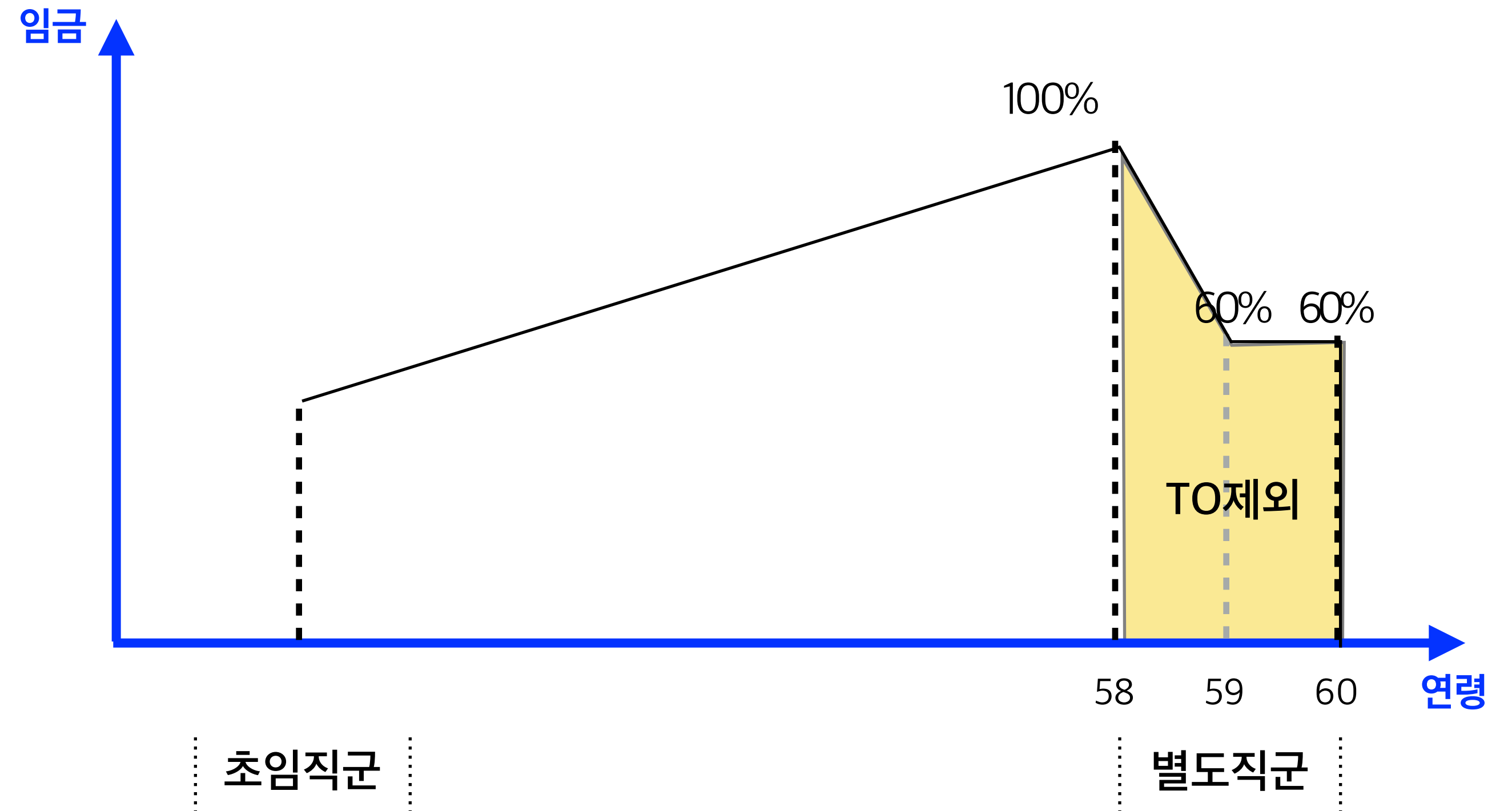
무료상담 신청 빠른 진행!
법원 접수까지 단 일주일!

에너지산업 원자력
7차 전력기본계획...일단 영덕원전 1·2호기만 반영
삼척원전 등 추가원전 2018년 최종 결정
고리원전 1호기 오는 18일 전 최종 결정
영흥화력 7·8호기 등 석탄발전 4기 철회
김진철 기자 | kjc@energytimes.kr

에너지산업 전력
석탄발전계획 '추풍낙엽' 신세...답답한 발전5사
이미 반영됐던 석탄발전 4기마저 철회
2년 뒤 석탄발전건설 고작 150만kW 규모
전력공급 차질시 전력대란 배제 못해 우려
김진철 기자 | kjc@energytimes.kr

승인 2015.06.08 08:05:11

<기획재정부의 별도직군 관리 지침>



-
- ✓ 정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자력 비중을 높이고 화력비중은 낮추겠다고 발표했다.
 - 이미 인가된 영흥 7, 8호기까지 철회
 - 2년 뒤 석탄발전건설 고작 150만kw
 - ✓ 기재부는 임금피크제 지침을 통해 피크연령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정원에 포함시키지 말고 ‘별도 직군으로 관리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.
 - 58세 이후 인력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직군으로 관리
 - 기재부가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으로 가지고 온 공공기관 정원축소 정책에 의할 때 별도 직군은 한시적으로 유지되다가 폐지될 가능성이 큼
 - 58세 이후 별도직군은 임금수준에 맞는 별도 보직 부여
 - ✓ 우리를 둘러싼 이러한 환경변화가 예고하는 것은 퇴출장치인 임금피크제가 그 본연의 모습을 조만간 드러낼 것이라는 점이다. 회사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정리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손쉽게 대규모 인력을 퇴출 시킬 수 있다.
-

비정상적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선제적 임금삭감

〈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〉

제19조(정년)

-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.
-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.

-
- ✓ 내년(2016년)이 되면 정년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60세가 된다. 그런데 지금까지 “실리”를 최우선적 가치로 삼아 온 남동노조가 이제는 조합원들의 실리보다는 정부의 청년고용 논리를 고려하면서까지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서두르고 있다.
 - ✓ 또한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고용이 현실에서는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임을 감안하면 남동노조의 핑계는 더욱 궁색해 질 수밖에 없다.
 - ✓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동노조가 조합원들의 임금을 선제적으로 삭감해가면서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?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여러분들이 지금 직감하고 있는 바로 ‘그 것’을 위해서이다.

남동노조를 비롯한 서울대병원노조와 부산지하철노조

매일노동뉴스

노동이슈 | 정치·경제 | 사회·복지·교육 | 기획연재 | 칼럼 | 피플·라이프 | 안전과 건강 | 노동

사건·사고 | 노동정책 | 노동조합 | 노사관계 | 비정규노동 | 노동법 | 국제노동 | 종합

노동이슈
노사관계

부산지하철노조 임금피크제·퇴출제 도입 막았다

성과급제 도입 철회 포함 잠정합의 ... "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저지 큰 성과"

제정남 | jjn@labortoday.co.kr



승인 2015.07.16



서울대병원에 이어 부산지하철 노사가 임금피크제·성과연봉제 없는 임금·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.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강제 도입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노조의 반발로 어긋나고 있다.

-
- ✓ 서울대병원노동조합에 이어 부산지하철노동조합도 정부와 회사의 임금피크제 공격을 막아내면서 민주적인 노동조합, 진실로 조합원들을 위한 노동조합이 무엇인지를 당당하게 보여주었다.
 - ✓ 특히 서울대병원노조는 과반수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수 있는 어려운 조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에게 눈곱만큼의 이익은 커녕 커다란 불이익만 가져다주는 임금피크제(퇴출장치)를 결연한 의지로 막아낸 것이었다.
 - ✓ 그런데 과반수노조인 남동노조는 “안돼!”라는 입장만 간단하게 전달하면 임금피크제(퇴출장치)를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사의 임금피크제 교섭요구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 냈고 이 합의안이 성과인 것처럼 조합원들에게 선전하며 가결을 요구하고 있다.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? 이것 역시 여러분들이 직감하고 있는 바로 ‘그것’ 때문이다.

남동노조 임금피크제 잠정합의안의 문제점



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
KOREA POWER PLANT INDUSTRY UNION

- * 우리의 생존권을 좌지우지할 임금피크제,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.
- * 압도적인 부결로 여러분들의 단호한 의지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.